



2002년
1월 15일
제 41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개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움 도시·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윤철중 http://www.holycc.org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2동 373-90 (☎200-091)

춘천 성시화 기도와 실천 새로운 전략으로 추진한다

- Cell기도 · 거리 도보기도 · 이웃돕기 병행 -

춘천 성시화 사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성시화 기도모임'(대표 조은제)은 기도실천의 새로운 전략을 짜고 매주 목요일 밤 정기기도회와 가시적인 길거리, 유인자, 산행, 행차기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의 기도모임을 확산시켜 세포(Cell)와 같이 작은 단위들이 도시 전역에서 기도한다. 기도실천 계획을 보면 셀별 기도(Cell Prayer)는 2~7명을 한팀으로 구성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셀별로 월드비전에서 정규 기도모임 전후 시간에 기도, 금식기도할 수 있고 또 Cell별로 매주 1회 13시30분 생강 기도(거리기도-오물수거-이웃돕기 병행)는 매주 또는 매월 토요일 오후 3시

11미이상 도보하고 필요한 지역에서 청소실시 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귀가하는 一石三鳥(일석삼조)식 기도실천이다. 이는 11미이상 도보를 통해 건강한 육신을 만들고 오물수거로 시가지의 깨끗하게 하며 참가에 따라 1인 1천원을 후원하여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이며 도보구간은 유인자 등산로를 택할 수도 있다.

동 기도모임은 1991년 9월부터 20여명의 기간단체인 기도모임에서

시작되었고 춘천직장선교연합회와 합동으로 92년 8월 2일 초교과 대집회를 통해 1972년 8월 대동한 성시화 운동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검토 시켰으며 199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성시화를 위한 기도모임을 이끌어 온 교계 지도자들은 전통대로 장로(서울 로스비무법인 대표회장) 양인영 장로(서울 로스비무법인 대표회장) 이병찬 안수집사(전 국가정보대학원장) 조남진 장로(월드비전 부회장) 허준기 장로(전 춘천기독교장로회연합회장) 조은제 장로(베드로선교센터 대표)이며 총무 유근창 장로(강원대 교수) 신철환 안수집사(유성선교 대표

이사) 등 여러 운영위원들이 조력하고 있다. 또, 교파를 초월한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차례로 말씀을 전하고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성시화를 위한 기도모임은 수년 전부터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없이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이제는 기도의 열망을 지닌 초신자, 청년 성도들과 모든 교회, 선교단체의 동참을 환영하고 있다. 춘천 성시화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니다. 춘천 시민이라면 춘천지역 전체를 위해 일일이 기도해야 하며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장 윤철중 목사 추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6시 30분 실행위원회를 열고 현 본부장 임택창 목사의 사의를 수락함과 동시에 지역 모든 교회의 존경을 받는 중앙성경교회 윤철중 목사를 차기 본부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년 12월 20일 오후 3시 30분 월드비전 3층 강당에서 개

최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윤목사는 춘천기독교연합회 제2대 회장과 한국기독교성경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많은 경륜과 덕망을 겸비한 매사에 남을 배려하는 덕행으로 알려져 있다. 윤본부장은 은퇴를 1년여 앞두고 목회를 마무리하려 할 기간에 춘천성시화라는 막중한 직임을 맡게 되었다며 끝까지 봉사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헌신을 다할 것이며 모두가 더불어 헌신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신년예배로 시정을 시작한 시청

춘천시청 직장선교회(회장 민병철장로) 회원들과 배계심 시장은 1월 2일 오전 9시 김무실에 모여 신년예배를 드리고 지난 한해 배움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 시정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했다.

예배를 주관한 중앙성경교회 윤철중목사(춘천성시운동본부장)는 "송리자의 삶"이란 주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인 믿음과 자선금, 적극

성을 가져야 하며 물리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복된 도시, 정의가 강함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교했다.

신년예배에 참석한 회원들과 동참자들은 2002년 춘천시민을 위한 건강한 시정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숙한 의식을 가진 모범 시민, 모범 직장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신년메시지

눈 내리는 아침



김창수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춘천신성교회

눈 내리는 아침. 창문을 활짝 열어 무겁고 오열한 공기를 몰아내고 조금은 차갑지만 그러나 신선한 공기를 맞이 들어 호흡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치적으로는 진승현 게이트, 수지갑 사건, 거둬지는 국회의 파행, 교계적으로는 CBS파업과 기독교연합총회 사태, 찬송가공회와 파행,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 의료보험통합문제, 인간관계지도 완성 등의 생명윤리의 문제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던 해였습니다.

슬망하는 지난 밤의 오열된 공기를 몰아내듯이 부패하고 냄새나며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말끔히 몰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동과 고교로같은 색은 도성 대신에 세태부상됨을 주마하진 주님의 약속이 이제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저 개인에게도 많은 일

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기만한 이 사람에겐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과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회장의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선교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시대에 회장의 일을 맡겨 주신 것에 어찌가 한없이 무거워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춘천에 존경하는 신배 목사님들과 좋은 동역자들이 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힘써 직임을 감당하려 다짐해 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연합, 그리고 교역자와 장로들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위해 전 임회장도 힘써 왔지만 아직도 춘천은 각 교회들의 연합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공통된 이익과 사업을 위해서는 움직임을 잘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기 다른 교파들로 이루어진 연합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진 우리

교회가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에는 여러 기독교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고려하는 가운데 기독교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서로 협력 협동하며 일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춘천지역은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많은 군부대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들 군부대 선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위문 및 군합동체제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합의 사업을 위해 모든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장한 계획보다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후회없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해 춘천과 강원도의 성시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희망찬 임오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임원개선



조영호 목사
교경협의회 회장

△회장: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 △부회장: 문정실 목사(사우동장교회)

△회장: 양기태 목사(신남강교회) 최현목 목사(남춘천교회) △총무: 조영환 목사(예강교회) △서기: 지용한 목사(춘천은혜장교회) △의결: 임경호 목사(강변성교회) △협동총무: 석정기 목사(강변성교회) 이준일 목사(베드로순복교회) 지용한 목사(춘천은혜장교회) 소영성 목사(만리동성교회) 임경호 목사(강변성교회) 정명훈 목사(예강교회) △감사: 최해수 목사(춘천성교회)

춘천기독교 연합 신년교례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창수목사)는 1월 4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3층 대회의실에서 "2002년 신년해례회"를 가졌다.

총무 신재현 목사(새춘천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대표기도 박승택 장로(부회장), 김치홍 목사(교동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란 주제로 김창수 회장이 설교했다. 하기철 목사(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 이학규 장로의 특별기도, 신성교회 여성중앙단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윤철중 목사(중앙성경교회, 성시화본부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사단법인 춘천성시운동본부

2002학년도 순복음강원신학교 신입생(남, 여) 모집

1. 모집학과 및 응시자격

모집학과	과정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방법
신학과(야간)	4년제	신입생 10명 편입생 10명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신앙생활 및 가정생활에 무관한 자	1차-실기 2차-면접
목회학과(야간)	3년제	신입생 10명 편입생 10명	① 침례(세례)를 받은 자 ② 타 신학교 2학년 수료자 ③ 타 신학교 이상 학제수료자 (단 편입생에 한함)	1차-실기 2차-면접

2. 원서교부 및 전형절차

- ① 교부 및 접수기간: 2002년 1월 7일(월) ~ 2월 25일(금) 까지
- ② 교부 및 접수장소: 신학교 교무처 (순복음춘천교회 내)
- ③ 전형일과 합격자 발표

- 1차> 필기교사: 2002년 2월 4일(월) 오전 10시
면접: 2002년 2월 5일(화) 오전 10시
- 2차> 필기교사: 2002년 2월 7일(목) 오전 10시
면접: 2002년 2월 8일(금) 오전 10시

200-95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651 (팔촌광장에서 체육관 방향 100m지점)
TEL. 033)257-2740 / 253-2741 FAX. 033)241-2741

기독교대한 순복음강원신학교

재단법인 한국대학생 선교회 부설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사랑과 기도의 어머니처럼..."

C.C.C.어린이집은 사랑과 기도의 어머니처럼 원아를 돌보며 풍부한 인적자원과 넓은 실내·외 전용 놀이공간, 대강당 및 4개의 교실을 갖춘 최상의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 ★ 원목: 정경호 목사(춘천C.C.C.대표)
- ★ 원호: 어린이 마음마다 하나님 사랑가득
- ★ 운영이사(주요사회에 의한 정칙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운영)
- ★ 조은제장로(베드로성경회와 원장) 이준택장로(서울교회) 신성교수(강원대) 장경원교수(강원대) 장관집사(아이마당 어린이집) 장기경자(강원일보) 이강호집사(조흥은행지점장) 유영진집사(연원집사(사우어어린이집장))

☐ 원아모집 ☐

- ★ 모집인원: 4개반 각 20명
※영세민 / 저소득층 자녀, 영세 가정
- ★ 접수처: ☎302-55-5776 / 254-5776 C.C.C.어린이집

- ★ 교육: 연령별 4개반 구성 / 각 수업을 맡기는 언어, 수, 과학, 음악, 미술, 신체활동, 놀이학습
- ★ 전문강사를 통한 피아노 / 미술 / 영어 / 유아체육
- ★ 놀이이식 신앙교육: 주1회 어린이 체육, 주2회 영유아교육
- ★ 자연학습장 운영
- ★ 부모교육 세미나 실시
- ★ 교사: 권미영(원주대 유아교육과 졸업) 안정순(상지대 졸업) 대학원(경원대) 안희희(명지대 사회교육과 졸업)
- ★ 교사: 배은경(동주대 여성교육과 졸업) 이경민(동주대 유아교육과 졸업)
- ★ 강사: 장연정(춘천교대 영어교육과 졸업) 이경민(경주대 유아교육과 졸업)
- ★ 보조교사: 이혜진(춘천교대유아교육과 졸업)

